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2강, 클로에 집안 에서 온 구전 소식에 대한 바울의 응답 , 3부, 고린도전서 2:5-16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2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2장 5
절에서 16절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있고, 이 강의는 4장까지 끝날 것입니다. 다음 1장을 위해 5장으로
넘어가야 하더라도,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특히 인식론
문제와 바울의 메시지가 그 초기 공동체에 권위 있었던 이유와 같은 매우
거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담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더 큰 신학적 영역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지식이 권위
있는지에 대한 변명으로 인해 2, 6~16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관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인식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처럼 받아들이는 이유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데 완강한 이유의 여러 면에서 기초가 됩니다. 교회 시대의 영과
인도는 핵심적인 인식론적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책을 썼고, 그 책에 영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대한 장과 기도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아이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Lagos Bible 소프트웨어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별도의 책으로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패키지 내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적 인식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식론과 특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명의 개념은 종종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신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시간을 내어 조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명이라는 용어를 따옴표로 묶은 이유는 그것이 신학적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당신을 그 자체로 조명한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체계 신학에서 조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한 표준 체계 신학을 살펴보면 조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더 나은 방법은 영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명 신학의 전체 아이디어는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교회 좌석에서 조명을 비추는 것은 종종 신이 직접 성경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의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마치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조명의 개념과 영을 증거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8:16,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 특정한 맥락에서 영의 증거는 믿는 이의 내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이며, 거듭났고, 거듭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확고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관에 넣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이며 우리가 가진 그 확신이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16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10은 또 다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사실, 요한 1서신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특별히 쓰여졌습니다.

지금은 요한 1서에 대해 다룰 수 없지만, 그것이 그 목적입니다. 5장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를 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널리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윤리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널리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의 증거는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 의무와 관련된 우리의 확신과 관련된 이러한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른바 계몽 신학에 대한 약간의 역사적 개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역사적 개요.

서방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서방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1500년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교회는 궁극적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일한 권위, 국가, 그리고 성경의 의미 등이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에게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고, 신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시대에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권위는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가? 좋아요,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의 1권에서 칼빈은 성경, 즉 로마의 구조물인 교회를 바꾸어 이 역사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칼빈은 성경, 성령이라는 방정식을 바꾸어 교회를 방정식에서 빼고 성령에게 범주를 주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로마 개념에서 성령은 역사적으로 말씀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 교회에서 말씀, 성령으로 방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언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내부에서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저는 방금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우리의 내적 확신은 중요하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신자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서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정신입니다.

진실성에 관해서는, 그것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것을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은 종교 개혁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식론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인식론은 말씀과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과 영입니다. 영은 말씀과 교제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켰고, 서양 세계 내에 많은

다양성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교회와 같은 거대 상황 외의 다른 것이 권위가 될 수 있는 경기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에게 성령의 역할은 내용이 아니라 설득이었습니다. 내용은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증인이라는 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내적 존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알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죄와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안에 확신이 솟아올랐다. 사실이다.

눈에서 눈가리개가 벗겨진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저는 신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저 글자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그럴 겁니다.

공부해야지. 하지만 읽어봤는데 말이 안 되더라.

하지만 제가 기독교인이 된 후 갑자기 요한복음을 받았습니다. 해군에 있을 때 개종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달라고 줬고, 윤곽이 그려지고 밑줄이 그어지고,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제게는 이해가 되게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했을 때, 제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사실 꽤 효과적이네요. 이제 저는 신의 가족의 일원이고, 그런 내적 확신이 있어요. 사실, 해군에서 나와서 학교에 간 후에, 글쎄요,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적인 것은 꽤 흥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나는 내 구원을 의심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의심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나는 바보 같은 기분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제 의심이었습니다. 제 의심은 제가 진정으로 신의 자녀 중 하나라는 내적 확신을 통해 저에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고, 신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이러한 역할을 확신,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때 나를 확신시키고, 그것이 진실이며, 강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증거에 대한 책을 쓴 램으로서, 이 책은 내가 아는 유일한 헌정된 책입니다. 사실 논문이었지만, 영의 증거라는 매우 읽기 쉬운 책입니다. 여러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칼빈을 요약하여, 인용문, 증언은 설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언가에 대한 설득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무언가가 아닙니다. 설득은 자기 실현적이지 않지만, 그것은 무언가에 대한 설득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증언은 게시된 내용이 아니라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확신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조명입니다. 조명은 이제 확신이며, 저는 그것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은 내용이 있는 계시를 주장하는 이 역사의 영광자에 반대했습니다.

칼빈과 종교 개혁 당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신학적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경과 경쟁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영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아니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칼빈과 함께 가기 위해 칼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칼빈은 말씀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 매우 실용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칼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계적 신학의 대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증거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나만의 밝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개요입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령의 증거. 증거는 어떻게,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글썄,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의 역할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요한 복음은 특정 장소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 즉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저는 62쪽의 맨 위 문단을 당신에게 읽어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이 신격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 실행은 영이 우리를 성경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진지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강한 강박관념이 없다면, 당신은 성령에 대한 응답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 아마도 활동들, 아마도 사회주의, 사회 활동들로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용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 즉 성령의 증거와 계시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에 붙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여기로 가져가서 놓고 여기 와서 성령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순종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성령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다. 성령의 증거와 구원. 그것이 실제로 본문이 나오는 곳이다.

그것은 구속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범주에 대한 특정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학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구원.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증거와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영이 성경의 의미를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용된 몇 가지 텍스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세 개.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은 당신의 해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경이 진지하고 실제적이며, 연구해야 하고, 풀어야 하며, 당신은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매우 장황한 문단이 있지만, 내용이 많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것은 많은 연구의 최종 결과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영이 거한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신학적 은유입니다.

당신이 영에 의해 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흉강에 하나님의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종류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요, 영에 의해 거한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력을 얻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중생의 혜택으로, 성령께서 믿는 이가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에 대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아마도 주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여 우리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성경의 의도된 의미에 접근하는 실제 과정은 해석학의 과제입니다.

이 의도된 의미를 드러내는 능력은 해석자가 해석학의 과학과 예술을 적용하는 기술과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에 복종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문학 학회 학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에 결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학문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 문화, 언어 등등에 대한 끝없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윤리와 도덕을 따르게 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 의도된 의미를 드러내는 능력은 해석자가 해석학의 과학과 예술을 적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영은 새롭거나 해석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걸 알려주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받아들인 구성물입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역자가 접근하는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돕는 동시에 강요를 피하고, 마음-의지-감정 복합체 의 강요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의지-감정 복합체는 자료를 이기적인 방향으로 왜곡하거나 피합니다. 글썄요, 이건 제 똑똑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읽고 많은 추가 설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참고문헌을 제공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으며, 읽는 측면에서 잠시 동안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할 만한 작가들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썼는지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판단을 내리세요. 이제, 우리를 조명에 대한 이 논의로 이끌어주는 핵심 본문은 고린도전서 2:6-16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5를 가져와 성경에서 외삽했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만, 그런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더 문자적인 번역을 좋아합니다. NRSV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15. 영적인 자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들 자신은 아무의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분별합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 구절은 당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지전능하다는 절대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창조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창조된 현실은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창조물에는 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은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종종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이 많고, 신은 그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신은 보통 이 세상의 사건에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단서도 없는 방식으로, 그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빗방울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에서 왕국이 무너지는 것까지, 아무것도 신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들 자신은 누구의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 비평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텍스트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NIV가 그렇게 했는지 보고 명확히 해 봅시다. 2:15,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글썄요, 당신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판단을 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당신이 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은 계시자였습니다. 방금 2:6-16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당신은 본문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과 바울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복종하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합니다.

바울은 4:4에서 잠깐만 주목하면,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본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NIV, 제 양심은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글썄요, 흥미롭네요.

나는 양심이 깨끗하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나에 대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연관시켜 판단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문화적 도전, 그리고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루는 대부분의 일은 성경에 증거 본문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더 높은 분류법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피라미드를 올라가 창조적 구성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데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며, 성경 자체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삶에 대한 그런 종류의 접근 방식은 그것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본문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8.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18. 저기 가야만 했어요. 표시해두었어야 했어요. 이 본문을 들어보세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은 영에 대한 큰 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5장과 6장은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제 웹사이트 gmeadors.com에서 teaching(교육) 항목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10시간 분량의 강의 시리즈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강의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맥락을 언급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거기로 가보세요.

5:16. 나는 영으로 살라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정욕은 영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영이 원하는 것은 육신과 반대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같은 시나리오다.

이것들은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2011 NIV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5:18. 갈라디아서 5:18. 어머, 켜버렸네요.

갈라디아서 5:18.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짧은지 놀랍습니다. 집중하세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좋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문구가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종종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문구를 여러분이 내린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게 맥락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맥락은 거룩함입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발전입니다. 그것은 미덕과 악덕입니다. 갈라디아서 5:18.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은유입니다.

물 위를 걸어온 남자의 손에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 그게 말이 아니야.

그것은 은유입니다.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맥락에서, 만약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만약 당신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는 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인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 인식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엉망인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18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BB 워필드의 성경 및 신학 연구 모음집에 The Leading of the Spirit이라는 훌륭한 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 이런 기사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 없이 표면화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층 방 담론.

이건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님의 다락방 담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무도 사용해서는 안 될 빨간색 글씨로 쓰여 있어요. 지금은 안경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없어요.

다른 곳에 두었을 거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 빨간색은 읽기 힘들어 .

요한복음 14: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우. 사람들이 모자에서 이걸 꺼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거야, 나는 네가 가르쳐 주는 데 관심이 없어. 신이 가르쳐. 영이 가르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이 구절이 그런 내용인가요? 우선, 우리는 다락방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제 연대기와 11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유다는 성찬식 직전에 떠났습니다. 하모니로 확인하면, 그는 성찬식 직전에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후반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것을 들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사도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음서 자체에 관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시험 전에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주님.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주님,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제, 그건 정당한 거예요.

좋아요, 14:26뿐만 아니라 16:13도요. 여전히 다락방에 계셨죠, 16:13.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다.

너는 누구야?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야. 우리는 너희보다 두 번째로 그것을 얻지만, 너희는 지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이건 예수와 사도들 사이의 일입니다. 이것들은 다락방 담화에서 추론해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벽에 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 서신을 쓸 때, 심지어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15:26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변호자 곧 아버지가 오면, 진리의 영이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증거할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증거하라. 이는 모두 사도적인 일이다, 나의 친구들이여. 이러한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성경을 오용하지 말라.

이것들은 사도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조직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필자들은 거기에 없었지만, 초기 교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누가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그가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그가 베드로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 의해 성경의 기록에 대한 초기 교회의 간증에서 큰 방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담화에서 진리를 얻는 것과 관련된 여러 진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결론을 내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26과 27입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것 당했습니다. 몇 번이나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2:26과 27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요한서신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2장과 3장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초기 교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요한 1서는 다른 두 권보다 조금 더 신학적입니다.

좀 더 역사적이지만, 요한일서 2:26과 27에서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속이려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너희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은 내주하는 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주하는 영에 대한 비유, 은유이다.

너희가 그에게서 받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므로 너희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며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것과 같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 자녀들아, 그가 예수이심을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와, 이거 뽑았어. 선생님은 필요 없어. 영이 모든 걸 가르쳐 주거든.

하지만 문맥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우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선생님을 은사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있는 모든 사명에서 온 세상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 없다면,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저 기도하고 성령께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해 달라고 구했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이 본문의 표면적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추구를 대체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냥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가정에 반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마디를 여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에게서 받은 기름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므로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26절에 있는 '누구' 뒤에 '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면 27절인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바울이 떠난 후 소아시아를 물려받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멘토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기름부음은 요한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아 요한에게서 받은 이해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요한은 왜 그러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시킨 영이 여전히 당신을 확신시키고 있으니, 벗어나는 것을 멈추고 가르침을 따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받은 가르침을 확증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성경과 별개로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영의 가르침을 주장하기 위해 쇠지렛대로 사용되기 위해 꺼내진 모든 텍스트는 말도 안 된다. 맥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에서 영의 역할은 당신이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이며, 설득력이 있으며, 당신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아침 식사와 커피를 마시며, 채팅 세션을 가질 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에 동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론적으로, 조명은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아닙니다. 조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에 대한 영의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영은 위대한 도우미이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이 있고, 불행히도 저는 몇 가지 결정, 임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4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개요를 알려드렸습니다.

해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쓰여진 내용과 그 항목 몇 개를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한 것처럼 파헤칠 수는 있지만, 스스로 파헤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양심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미 4장 4절을 언급했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만, 8장부터 10장까지 들어가면 양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1에서 4까지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조금 느리게 시작했어요. 저는 1절에서 9절까지의 강의 중 하나를 실제로 다시 하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서 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1시간 분량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날보다 더 나은 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메모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격려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숙제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더 나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극제입니다. 여기저기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좋은 학생이 되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도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2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 2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